



김용래 교수
한국불교 도박 36選

원나라 침략 속에서 내려진 '선종의 뿌리'

17. 元 간섭기 불교계의 변화

고려는 최씨 무인집권기였던 1231년부터 약 30년 간에 걸친 몽골의 7차례 침입에 맞서 싸웠고 정부가 강화도로 천도를 감행하면서까지 항쟁을 계속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도 개경을 포함한 전국토가 유린되었고 부인사에 있던 조조대장경과 경주의 황룡사 9층 목탑 등 다수의 불교 문화유산이 불에 타는 등 크나큰 피해를 입었다. 1259년 몽골과 강화후 후 공민왕의 반원운동이 성공한 1366년까지 약 100년 동안 이어진 이른바 원간섭기는 정치적으로 매우 독특한 시기였다. 이 시기를 원간섭기라고 하는 이유는 충렬왕부터 공민왕까지 고려 국왕들이 원 황제의 사위로서 황실의 일원이 되었고 황제가 직접 임명된 반면, 고려 국왕의 자치가 인정되고 풍속이 유지되는 등 고려의 자율성이 용인되는 이중적인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역대 원의 황제들이 대고려 정책의 준거로 삼은 쿠빌라이 칸의 '세조구제'는 고려의 풍습을 바꾸지 않고 존립을 보장한다는 '불개토평'의 원칙을 천명한 것이었다. 실제로 원은 고려에서 군대와 행정관 다루기 등을 철수시켰고 직접적 조세 수취를 의미하는 호구 조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정치, 경제, 군사 등 제반 영역에서 고려는 세계제국을 건설한 원의 구심력에 하위 있었고 원의 세계체제의 일원으로 존속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은 불교계에도 변화를 추동하였다.

이 시기 불교계의 변화는 원의 영향력 증대와 원 황실의 티베트불교 전래, 중국 임제종풍의 유입을 그 특징으로 한다. 고려의 주요 사찰들은 원 황실과 귀족의 원찰이 되기를 자청하기도 했는데, 원찰로 지정된 사찰들은 정치적 보호와 경제적 후원을 받았고 그에 따라 불교계의 판도가 달라졌다. 고려 불교계를 대표하던 수선사도 일본 정벌을 위해 징발된 남해안의 토지를 되돌려달라는 탄원을 올려 성사되었고 원찰 지정을 청원하면서 원 황실의 비호와 특혜를 받게 되었다. 수선사와 함께 결사운동으로 유명했던 천태종 백련사 계통도 그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는데, 충렬왕의 왕비 제국대장공주가 원찰로 개경 교련사를 창건하고 백련사 출신 정오 등을 주지로 삼으면서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그밖에도 주요 사찰에서는 고려 국왕과 왕실에 앞서 원 황제와 황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법회가 성대히 열렸다. 특히 금강산은 <화엄경>에 나오는 담무갈(법기)보살의 상주처로 알려지면서 원 황실 및 귀족들의 원찰로 지정되고 후원과 불사가 집중되었다. 법기신앙의 중심지는 표상하였는데 주전인 반야보전에는 법기보살상 6구가 동쪽 법기봉을 향해 안치되었다. 또 장안사는 고려 여인으로 원 순제의 정식 비가 된 기황후가 황제와 황태자를 위해 불사를 크게 벌였고 은으로 사경한 대장경이 하사되었다.

한편 원 황실의 공주가 고려의 왕비가 되고 황실 일원과 판도들이 고려에 빈번히 오게 되면서 몽골에 전해졌던 티베트불교 계통의 원 황실불교가 유입되었다. 티베트불교의 사상적 영향은 크지 않았지만 이후 불교 의례와 미술 및 건축 양식 등에는 많은 영향을 미쳤다. 진언 다라니의 유행과 원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사리기와 사리탑, 경천사 10층 석탑 등이



대몽항쟁 당시 용인 처안성 전투를 묘사한 민족 기록화. 원나라의 간섭이 시작되면서 원 황실의 티베트 불교 등이 들어와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중국 선종도 유입돼 중국식 의례와 정규 등이 자리잡았다.

대표적인 예이다. 이에 비해 고려에서 국가적 차원으로 행해지던 법회나 의례는 축소되거나 중단되었고 아니면 성격이 달라졌는데, 국가의례인 연등회와 팔관회, 외직의 극복을 기원하기 위해 열렸던 단선 법회 등이 원의 압력에 의해 열리지 않았다. 또한 고려의 국제가 제후국에 맞게 격하되면서 국사 칭호도 국존이나 국통으로 바뀌었다.

이와는 반대로 고려불교가 원에 역수출된 사례도 나타났다. 원으로 끌려간 고려 여인과 환관을 비롯해 원에서 지내며 활동하던 고려인들을 통해 고려불교가 역으로 전해졌다. 특히 원 황실과 귀족 집안에는 기황후의 경우처럼 많은 고려 여인들이 존재하였다. 그 결과 원의 수도 대도에는 고려인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사찰들이 생겨났고, 이들 절에는 고려 출신 승려가 주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유학승들의 주된 근거지가 되었다. 또 원에서 대규모 경전 사경을 추진하면서 전문기술자인 고려 승려 100명이 파견되었는데, 법상종 계통 해영 등이 주도하면서 고려 내에서도 세력을 키울 수 있었다. 경전을 글자 그대로 베껴 쓰는 사경은 고려에서 공덕신앙으로 크게 중시되었는데, 금자와 은자로 쓰는 등 고위층의 발원에 의한 사경이 많았고 <법화경>과 밀교계통 경전의 사경이 주류를 이루었다.

원의 세계제제라는 국제화 시대 분위기 속에서 고려의 왕자나 학자들이 원에 장기간 머무기도 했는데, 충선왕은 대도에 있을 때 만권당을 세워 중국의 일류 학자들과 이제현을 비롯한 고려의 젊은 문사들 간의 학술교류를 도왔고 이는 성리학 도입을 촉진하

원 황실 티베트 불교, 고려에 유입돼 법기신앙 중심 금강산, 원 후원 집중
중 선종도 유입... '백장청규' 자리잡아
태고·나옹·백운, 중 선종 법맥 전파
여말 간화선풍, 한국 선종 근간 세워

는 계기가 되었다. 충선왕은 원의 불교계를 직접 후원하기도 했는데, 의천 당시 고려불교와 깊은 관계를 맺게 된 항주의 혜인사를 지원하였고 대장경을 인쇄해 중국 강남지방 사찰에 배포하기도 했다. 또 당시 강남의 임제종을 대표하는 승려였던 중봉 명분과도 깊이 교류하였고 정토교 계열인 백련종의 복고 운동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였다.

이 무렵 원의 강남지방에는 한족 중심의 중국불교 전통이 계승되고 있었는데 그 중심은 선종과 정토신앙이었다. 당시 중국 선종은 임제종이 주류였는데 인적 교류를 통해 고려에 본토의 임제종풍이 직수입되었다. 임제종 간화선풍은 깨달음에 대한 스승의 인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었고 고려에서도 원에 유학하여 강남지역 임제종 승려의 법을 전수해 오는 것이 유행처럼 번졌다. 특히 13세기 후반부터 무자 화두와 본분종사의 인가를 중시한 몽산 덕이의 간화선풍이 훈구와 만향 등을 통해 고려에 전해지면서 이후 몽산의 저작이 다수 간행되는 등 큰 영향을 미쳤다.

그에 따라 14세기 중반 무렵이 되면 임제종 간화선풍이 고려 불교계의 트렌드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이와 함께 선종 규범서인 <백장청규>가 수입되어 사찰 의례 및 일상생활의 준칙이 되었는데, 이때 들어온 것은 원 황제의 칙명에 의해 새로 만들어진 <칙수 백장청규>로서 황실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 등 국가불교적 색채가 짙었다.

원간섭기에는 많은 고려 승려들이 원에 건너가 임제종 법맥을 전수받고 간화선풍을 체득하여 왔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태고 보우, 나옹 혜근, 백운 경한의 여말 3사를 들 수 있다.

먼저 태고 보우(1301~1382)는 태고법통의 주인공으로서 한국 선종의 중흥조로 추앙받는 인물이다. 태고는 9산선문의 가지산문 출신으로 승과에 합격한 후 <원각경>을 통해 지해를 타파하였고 개경 전단원에서 무자화두 참구를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 이후 북한산 중흥사에 있을 때 태고암을 짓고 자신의 깨달음의 경지를 노래한 '태고암가'를 지었다. 46세의 늦은 나이에 유학길에 올라 1346년 대도에 머물면서 원 황실에서 <반야경>을 강설하였고, 다음 해에는 강남의 임제종 선승 석우 청공에게 인가를 받았으며 다시 대도에서 황태자 축원법회를 주관하였다. 1348년에 귀국하였고 1356년 왕사로 책봉되자 주석하던 광명사에 원유부를 설치해 '9산의 원공과 5교의 흥통'을 내세워 9산선문의 통합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공민왕의 총애를 받던 신돈에게 배척되어 밀려났다가 신돈이 축출된 후 재기하여 1371년에 국사가 되었다. 그는 <백장청규>를 널리 유포시키는 한

편 교훈이 되는 법어 등을 모은 <치문경훈>을 원에서 들여와 간행하기도 하였다.

태고 보우와 쌍벽을 이뤘던 나옹 혜근(1320~1376)은 조선시대에도 지공-나옹-무학의 3화상으로 존송되었다. 나옹은 1344년 양주 회암사에서 깨우친 후 1347년 원의 대도로 가서 인도 출신 승려 지공을 스승으로 모셨고, 1350년에는 임제종 승려 명산 처림에게 인가를 받았다. 1356년 원의 순제에 의해 대도 광제선사의 주지로 임명되어 개당법회를 주관하였고 1358년에 귀국하였다. 이후 공민왕의 인정을 받아 국왕의 원찰인 해주 신평사에 주석하였고 승과인 공부선을 주관하였으며 회암사의 주지가 되었다. 1371년에는 왕사로 봉해졌고 송광사를 거쳐 다시 회암사의 주지가 되었는데 이곳에 스승 지공의 유품을 봉안하였다. 지공은 고려를 3년간 방랑한 적이 있고 무생계법과 같은 금욕적 계율관을 주창하면서 대중들의 큰 호응을 받았는데, 나옹은 스승의 유품을 계승하고자 한 것이다. 나옹은 1376년 회암사 중창공사로 인해 사대부들의 탄핵을 받아 밀양 의영원사로 가던 중 여주 신평사에서 입적하였다. 나옹의 제자로는 환암 훈수 등 다수가 있지만 나옹에서 무학 자초-함허 기화로 이어지는 계보가 여말선초 불교계를 주도하였다.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인 <불조지지심체요절> 2권을 편집한 백운 경한(1299~1374) 또한 54살이 되던 1351년에 중국으로 건너가 태고와 같은 석우 청공의 법을 전수해 왔고 나옹이 스승으로 모신 지공에게 법을 물기도 했다. 1353년 석우 청공이 입적하면서 전법계를 이어 백운에게 전하게 한 사실에서 그가 석우의 인정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백운은 귀국 후 공민왕에 의해 신평사 주지로 임명되었고 왕비 노국공주의 원당인 흥성사 주지도 맡았으며 1370년에는 공부선을 주관하였다. 그의 선종 또한 기본적으로는 화두를 참구하는 것이었지만 무심의 경지를 특히 강조한 점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백운이 1346년 청양장곡사 약사여래좌상 조성의 발원문을 쓴 것으로 밝혀지면서 그의 50세 이전 행적이 알려지게 되었다. 발원문에 의하면 그는 본격적으로 선수행을 하기 전에 교화활동에 주력하였고 국가가 시행한 기우제를 주관했던 만큼 기도의 영험함으로 큰 명성을 떨쳤음을 알 수 있다.

원간섭기의 임제종 간화선풍 유입과 중국식 의례의 도입은 고려불교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지각변동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그에 대한 비판론도 제기되었는데, 조선 개국 초에 서울의 조계종 흥천사 주지 상충이 태조에게 올린 상소문에는, 당시 불교계의 경향성에 대한 우려와 지눌의 수선사 전통을 회복해야 한다는 제언이 담겨져 있다. 상충은 명리를 다루는 폐단이 아직 남아 승려들이 선수행과 교학연찬을 하지 않는다고 한탄하면서 선과 교를 겸수해야 하며 특히 선종은 보조 지눌의 유제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풍의 불교를 높이 받드는 모화승들이 의례작법에서 전통을 계승하지 않는 점을 비판하면서 지눌의 수선사 작법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불만이 제기되기는 했지만 원간섭기 이후 크게 유행한 임제종 법맥 전수와 간화선풍은 조선시대대로 그대로 이어지면서 한국불교 선종 전통의 근간을 형성하였다.

영남범패학인모집

본 원에서는 영남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하여 뜻을 같이 할 제 15기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아 래

- ◆ 개강일시 : 2015년 11월 16일(월요일) 오후 3시
- ◆ 교육장소 : 달천사 (함안군 칠원읍 유원길 778)
- ◆ 수 강 일 : 매주 월요일 오후 3시 ~ 6시
- ◆ 교육기간 : 6개월 과정
- ◆ 교육내용 : ① 상응의식 및 재의식 ② 사물다루는 법
- ◆ 수강자격 : 식발명의한 출가승려에 한 함
- ◆ 수 강 료 : 월 10만원 <교재비 별도>
- ◆ 준 비 물 : 필기도구 및 녹음기
- ◆ 문의전화 : 055)587-8419
- ◆ 카페안내 : Daum에서 <영남범패불음원>을 검색해 보세요.

사) 대한불교불음원 원장 원명 합장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딱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 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 56 156761 (조명숙)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1개월 60팩
80ml×60팩 (IBOX)

신장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입니다.

제품문의 : 02)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